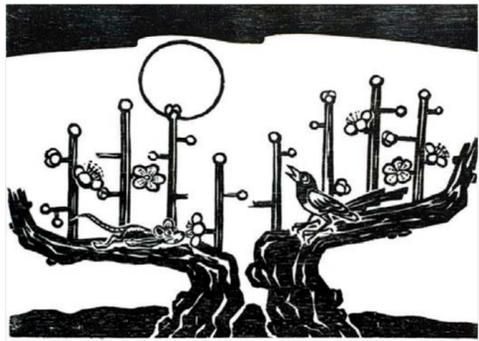


투박해서 더 강렬한... '목판화' 깊은 매력



홍성민 작 '탐매, 달에게 물어봐'

2020	1	2	3	4	5	6	7	8
시월달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아시아목판화연구소

홍성민 작 '탐매, 달에게 물어봐'



고근호 작 '신대동 세상'

홍성담 등 13명 '2020 목판화 보따리' 전, 16일부터 메이홀 16~25일 '시민미술학교' 무료 판화강좌, 달력·판화첩 판매도

투박한 '손맛'과 강렬한 '칼맛'의 목판화 작품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1980년 오월 항쟁 당시를 비롯해 역사의 현장마다 판화는 많은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왔고, 솔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목판화' 본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지역 중견 작가들이 참여한 원화 전시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무료로 목판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또 다양한 작품이 실린 원본 목판화 에디션 판화첩과 달력도 판매하는 등 직접 작품을 소장할 수도 있다.

'2020 목판화 보따리' 전이 1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시민 자생 공간 메이홀 2층(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3번길)에서 열린다.

메이홀과 시각매체연구소를 이어받은 아시아목판화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이번 기획은 80년대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시민미술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며 목판화 제작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금까지 지원금에 의지하는 행사가 아닌, 작가들의 의지에 따라 수고스럽더라도 중견작가들이 참여해 표지를 포함, 1월부터 12월까지 한명의 작가가 따뜻한 시선과 역사의식을 담은 목판화 한 점을 제작했다.

홍성담 등 13명의 참여작가는 열 두달의 의미를 담은 작품을 제작했다.

1월은 홍성담 작가의 '남매'다. 꽃과 물고기를 안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한다.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삼은 이들도 있다. 3·1절이 끼어있는 3월에는 주흥의 '우



리가 유관순이다', 김구 선생의 생일이 있는 8월에는 전혜옥의 '김구'가 실렸다. 또 12월은 '너희는 내 고향의 반쪽을 어디에 버렸느냐고 묻는 임의진 목사의 '반쪽 예수'가 담겼다.

5월 그림으로 실린 고근호 작가의 '신대동 세상'은 홍성담 작가의 오월 작품 '대동세상'을 모티브로 했다. 홍작가의 작품 속에 광주항쟁 당시 평범했던 주역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면, 이번 작품에는 윤상원, 김구, 문익환, 노무현, 체 게바라 등과 함께 존 레논, 프레디 머큐리, 마이클 잭슨이 함께 등장해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밖에 백은일의 '꽃', 홍성민의 '탐매, 달에게 물어봐', 김해성의 '꽃과 소년', 천현노의 '들불', 전정호의 '하의삼도 7·7항쟁 연작', 김학련의 '태백준령-숲의 거인', 양갑수의 '달항아리', 김화순 '촛불은 햇불이 되어' 등이 제작됐다.

16일부터 25일까지는 아시아목판화연구소가 진행하는 '목판화 시민미술학교'가 메이홀에서 열린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목판화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목판화를 제작해 연말 전시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

원화 전시 개막날인 16일 오후 6시에는 오프닝 파티가 열린다.

참여작가들과 목판화 이야기를 나누는 예술파티로 각 작품의 첫번째 에디션을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또 달력은 1만원에 판매되며, 20개 한정제작한 판화첩은 5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완벽한 이상적 세계 '유토피아'

문형선 개인전, 24일까지 예술공간 집

서양화가 문형선 작가는 '완벽한 이상적 세계'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해 왔다. 오는 24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UTOPIA IMAGE'를 주제로 열리는 14번째 개인전 역시 '이상향'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시회다.

유토피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상향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이상향이라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해온 작가는 최근 '원형이미지의 혼성적 표현형식'을 통한 유토피아적 공간 연구'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발표, 예술적 표현을 넘어 이론적 연구까지 아우르며 '유토피아'라는 상징적 표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유토피아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여져왔다. 작가에게 유토피아는 더욱 이상적이기도 또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작업의 원동력이 됐다. 그는 유토피아라는 원형이미지를 자연이나 기억된 특정 장소의 이미지와 결합해 다층적이고도 혼성적인 표현방식으로 재현한다.

작가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유토피아라는 원형이미지의 작품들이 관객과 만나면서 많은 이들의 이상이 실현



'UTOPIA IMAGE'

되기를 함께 꿈꾸고자 한다"고 말한다.

문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오지호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화순 소소미술관 입주작가,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단 운영감독, 조선대 초빙객원 교수로 활동중이다. 초대 일시 16일 오후 3시. /김미은 기자 mekim@

19일 '관객과 함께 놀아보자'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앙상블 '아미고' 초청...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청이 주최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울 마지막 공연이 19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초청 단체는 앙상블 아미고(Emsemble Amigo·사진)다.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즐기며 놀아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단가 '사철가' 중 마지막 구절인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를 주제로 선보인다.

공연은 이지수의 '아리랑렘소드', '배피워라'로 문을 연다. 이어 '강원도 아리랑', '오즈의 마법사' OST 중 'Over the rainbow', '알라딘' OST 중 'A Whole new World', '옛타령' 등을 선보인다. 또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을 앙상

블 아미고만의 목소리로 재탄생시킨 '모던심청'도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무대는 다양한 아리랑을 엮어 만든 '아리랑 판타지' 연주와 신문회의 '아름다운 나라'로 마무리한다.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의미로 광주 출신의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만든 종합 예술 단체다. 남성 중창단 포르투나(Fortuna)와 국악 실내악단 운슬, 현악 앙상블 단체인 스피렌(SPIELLEN)이 모여 2016년 결성했다. 전통적인 클래식과 국악 뿐 아니라 현대인의 감성에 알맞은 다채로운 무대, 신선한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비엔날레 18일 'GB 작가스튜디오탐방'... 29회차 참여작가들 방향성 논의

(재)광주비엔날레가 개최해온 'GB 작가스튜디오탐방'가 올 한해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18일 오후 6시 광주비엔날레 제1회 3층에서 열리는 12월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은 그간의 프로그램을 되돌아보고 역대 참여작가들의 소감을 나누며 소통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꾸러진다.

2016년 제11회 광주비엔날레 당시 지역 밀착형 정기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으로 시작된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은 2017년 8월부터 고정된 장소로 벗어나 작가의 작업공간을 탐방하는 형

식으로 바뀌었고 29회 동안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가와 작품세계를 공유하는 행사로 발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방문했던 스튜디오 탐방 현장을 간추려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소감과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작가를 비롯한 광주비엔날레 관계자와 관객들이 함께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참여작가는 총 28명·팀으로 강운, 정

선휘, 당시 대안공간 지구발전다오라 레지던시 작가(노순천·허미진·박용규·박희연), 박상화·이이남·신호운·하루.K·이정록·주라영·오용석·강연준·문유미·황영성·이세현·정광희·이인성·정운학·박일구·권승찬·박성완·조진호·노여운·조현택·최승민·송필용·박태규·우재길·임현재 등이다.

GB 작가스튜디오탐방은 매월 한 차례씩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스스로 운영되고 있다. 다음 행사는 2020년 1월 29일 진행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INNOVATION AWARDS, BIG INNOVATION CHAIRMAN'S CHOIC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